

1월

신년호

January, 2009



목차

-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다녀와서
- 고효정 자매
- 함께 나눴어요
(일상에서 나누는 나의 이야기)
- 권희창 형제
- 미디어 룸 레어
- 청년 함지하
- 제 6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이모저모
- 유타 대학총교회 소식



미 유타대학총교회 월간소식지

The Soullake

통권 제 58호 (9) - 01

2009년 1월 25일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다녀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Univ. of Utah에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고효정이라고 합니다.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청년부수양회에서입니다. 헌진 자매님께서 다음 break때에는 창조과학 탐사 여행이라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창세기 1장과 노아의 홍수를 주제로 한 여행이 있는데 정말 꼭 가볼 가치가 있다고 추천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주저하지 않고 신청을 했지만 그때까지도 이 여행이 이렇게 큰 삶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멋모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중3 때 가장 친한 친구를 따라 나갔던 교회에서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임원으로 섬기며, 또 학교 내 선교단체에서 리더로 서면서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저의 약함을 통해 강함되시는 하나님을 느끼

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이곳에 온 약 4개월 동안 저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낯선



고효정 자매

환경에 적응하느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컸습니다. 금요찬양예배도 주일에 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생활이 살만해지자 저는 또 다시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큐티도 빼먹기 일쑤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엄마를 위해서 간절하게 했던 기도도 게을리 하기 시작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점점 시들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방학 한지 1주일 만에 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것은 날씨,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여행 내내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좋은 날씨를 위해 기도해주셨던 많은 분들과 이런 날씨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행 중 느낀 점들을 셀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를 손꼽아 보자면, 첫째로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패러다임 아래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 ‘진화론’ 이 과학적인 증거에 근거해 살펴보았을 때 허구이며, 그 패러다임이 동성애의 정당화나 공산주의, 인공낙태 등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들을 끼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을 가기 전 저는 뉴욕을 여행했는데, 그때 여행을 함께하던 믿지 않는 친구가 ‘너는 왜 동성애를 반대하니?’ 하고 물어왔을 때, 정확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왜 틀린 것인지에 대해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수업시간에도 자주 그 문제를 접하면서 제 안에는 그에 대한 고민들이 쌓였었습니다.

또한 미국에 있으면서 한 학기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면 ‘나의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간구했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주시는 여행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중 하나구나! 정말 내 삶에 이 여행 또한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하심’ 라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시들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재만 선교사님께서 욥기 38장 4절의 말씀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 과학적인 설명이 곁들여져 머리 속에 시뮬레이션처럼 그려졌고, 아무 의미 없이 나열된다고 생각했던 족보의 이름들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유를 알게 되면서 무미건조한 마

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던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로 적셔주셨습니다.

세번째로 그랜드 캐년과 구화목공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과학시간에 분명히 오랜 침식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배웠던 그랜드 캐년이 노아의 홍수 때 비가 그친 뒤 만들어진 커다란 호수 두 군데가 터지면서 짧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또 한번 제 안의 기존의 패러다임이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창조여행에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들을 데려오신 아주머니, 그리고 결혼선물로 온 신혼부부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분들은 마지막 버스 안에서의 짧은 간증 시간에 결국 변화되지 않은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지만 저는 그 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보이는 증거를 체험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분의 때에 정확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믿지 않으시는 어머니 기도를 게을리 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 부끄러워졌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그 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



“여오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은혜를 멸시하느니라”

/ 잠언 1:7

...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한 도구” 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훈련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새해에 하게 되었습니다.

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한, 간절히 구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 위에 오버랩 되면서 다시 한 번 한국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게을리 하면 안되겠구나!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급급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신 이 재만 선교사님을 보면서 저도 제 삶에서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영혼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오게 하신 것도, 유타 대학총 교회로 이끄신 것도, 여행에 오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여행 중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유타에 오기로 결정된 그 날부터 유타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며 한 학기를 마치기 까지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라는 잠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한 도구’ 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훈련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새해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진 이 마음 끝날까지 잊지 않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SL)





일상에서 나누는 나의 이야기



권희창 형제

여행을 가기 전에 저는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를 나가 본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을 뿐더러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지껏 제가 배워온 교과서 적인 지식은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성립하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대중이 생각하기에 적당한 논리가 성립돼야만 그 가설이나 논증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 성경은 저에게 그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여러 종교 중 하나이고 기독교란 이름으로 명명되어 진다는 것 이외에 다른 지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 문외한인 저에게 창조과학탐사란 타이틀을 내건 이번 여행은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말하면 이러한 걱정들은 괜한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이 탐사여행의 근원은 성경이었지만 여행을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재만 선교사님께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또한 다분히 과학적으로 설명해주신 내용을 들으며 기존의 패러다임의 틀에 갇혀있던 나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접해 온 다윈의 진화론을 지지하기 위해 시험에 나온다고 달달 외웠던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및 다른 유인원의 화석, 또한 예전 고대 동, 식물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지질계통표 등이 다 조작된 사실이고 과학적인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격변으로 인해 생겨난 커다란 두 개의 호수의 붕괴로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가는 도중에 배운 여러 현상들을 그 곳에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두 가지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여지껏 대두 되었던 진화론이 허구였다는 점이며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제게 진실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차차 알게 될 거란 믿음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창조여행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L)

그리고 침식작용으로 생겨난 줄 알았던 그랜드 캐년이



4년 전쯤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한 백인 노신사를 기억하세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던 오대원(미국 이름 David E. Ross) 목사님 말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한 분. 한국 예수전도단의 창립자. 지금은 제 2의 선교 비전을 북한선교에 두고 있는 북한선교사.’

우리 교회에 방문했을 당시 저는 그분으로부터 한반도가 그려진 작은 뱀지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뱀지를 제게 건네기 직전, 그분은 “북한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나”는 질문을 했었고,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그렇다는 제 의사를 표현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제가 북한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선교에 대한 비전도 전혀 없을 때였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오대원 목사님에게 뱀지를 건네 받은 건 억측인지는 모르지만, 제 안에 있던 하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러던 사이 선교라는 말에도 조금 익숙한 사람이 되었고, 많이는 아

니지만 선교에 관심을 조금씩 쏟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북한 출신 탈북청년 리성과 만나 그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와 책 출판을 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할 땐 사실 단순한 북한 실상을 담을 생각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 친구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통해 기자 작가로서의 커리어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이와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북한을 향한 마음을 발견했고, 또 자본주의 세상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한 탈북청년의 아픔과 눈물을 봤습니다. 커리어를 높이겠다고 했던 제 계획은 수정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대신, 성이의 아픔과 눈물을 치료하고 닦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막연한 소원이지만 훗날 북한으로 되돌아가 선교를 하고 싶다는 ‘미래의 리성 선교사’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본래의 계획과는 전혀 방향이 다른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책 출판을 며칠 앞 둔 어느 날, 저는 눈을 감고 이 책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달하면 좋을지를 생각했습니다. 한 위대한 선교사의 탄생의 감격을 함께 나눌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때 제 머리 속에는 오대원 목사님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저를 대신해서 ‘북한선교에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 약속은 이제 책 출판을 계기로 조금씩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대원 목사님께 당신과의 약속이 이제야 지켜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대원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기가 힘들다면 책이라도 전달할 수 있게 연락처라도 알려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2008년 12월 9일 화요일, 서울의 한 교회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루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오대원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중국으로 향하는 길에 잠시 한국을 경유해서 가는 일정을 택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저는 '감사하다' 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대원 목사님과의 약속으로 하나님은 제게 이런 책을 집필할 수 있게 하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 사명과 비전, 이 모든 것들이 저도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오대원 목사님과의 약속으로 세워졌다는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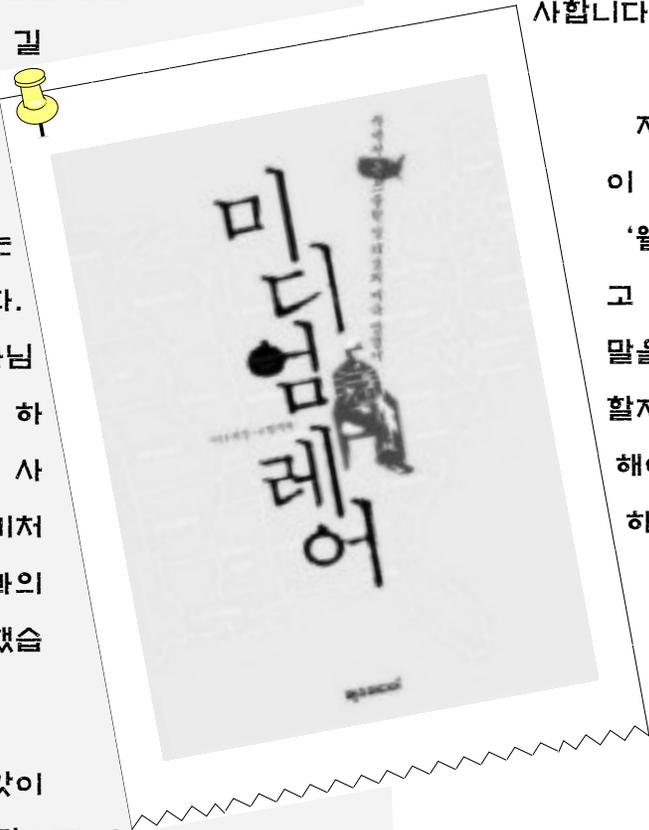
우리 곁에는 이성이라는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신앙적으로 아직 한참의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직 어리고, 덜 익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스테이크가 덜 익은 것을 빗댄 '미디엄 레어(Medium Rare)' 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앗이 북한 땅에 심겨지고, 자신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는 많은 동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북한의 복음화

라는 놀랍고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 청년을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발걸음입니다. 제목처럼 성이, 그리고 성의의 삶, 또 함지하 저 자신이나, 제 글 솜씨와 책의 내용조차도 아직 덜 익었습니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을 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저와 성이에게 '웰 던(Well done)' 이라고 말씀하실 그 날을요. 이 말을 '잘 했다' 로 해석해야 할지, '잘 익었다' 라고 해석해야 할지는 그 때가서 고민하겠습니다. (SL)



제 6차 유학생 창조과학여행 이모저모

처음엔 여행으로만 생각하고 들뜬 마음으로 왔는데 2박 3일 동안 여행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을 다시 되돌아 보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유학생 탐사여행은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김예진 자매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속는 마음으로 여행한다는 생각으로 온 유학생 탐사 여행인데 뜻밖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 후원해주신 온누리교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증거를 알려주는 좋은 여행이 계속 지속되어서 저같이 어린 신앙을 가진 유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종근 형제

사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도 아니고 진화론에 익숙해져 있던 저였지만 이번 유학생 탐사 여행을 통해 창조론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창조론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이번 유학생 탐사여행에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 김지은 자매

이번 유학생 탐사여행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기 원합니다.

- 김우철 형제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이 많던 저였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직접 경험하게 하셨듯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에게도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원해주신 온누리교회에 너무 감사합니다.

- 반소영 자매

유타 대학촌 소식



1 월 선교부소식

1. Penny 모으기에 동참해주시고 특별 헌금을 페니 선교회에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50.00은 이 추운겨울에 북한어린이들을 따뜻하게 해줄 양말,장갑,내의 그리고 털신발을 사는데 쓰일 것이고 \$266.54은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빵을 만들어 제공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2. Sundance목장에서 섬기는 한국 천사의집(방동식 목사님)에 관한 소개를 1/11에 해 주시겠습니다. (천사의집 home page:<http://cafe.daum.net/1004bds>)
3. 캠퍼스 경배와 찬양이 1/30일오후 7:30~9:00PM에 U of U Heritage center meeting room 1A&1B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주제는 "사랑"이고 대상은 "한국 학생"입니다. 관심을 갖고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선교부 추천 Film:"김정일리아" - 1/15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Sundance 영화제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게 될 "Kimjongilia"가 출품되었습니다. 13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의 수용소 실태와 굶주림, 표현의 자유부재등 북한사회 전반에 대해 인터뷰 형식으로 증언한다고 합니다. (문의) Sundance Film Festival, Park City



1 월 교회기도제목

1. 새해 온은 목표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실천하기를
2. 특별새벽기도회가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3. 새로 시작하게 될 성경공부를 통해 더 성숙한 일꾼으로 변화되기를



SoulLake 편집 후기

“[Http://ucccutah.tistory.com](http://ucccutah.tistory.com)” -> 새로운 대학촌교회 온라인 게시판 새로운 홈페이지가 개설되기 전까지 모든 교회소식, 설교말씀 및 목회자 컬럼 등은 위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



대학촌교회 오시는 길



예배 안내

구분	예배	시간	구분	예배	시간
주 일	1부 예배	09:50 AM	주 중	08' 새벽예배	월-금 06:00 AM 토 07:00 AM
	2부 예배	11:00 AM		금요찬양예배	금 07:00 PM
	Youth	09:30 AM		청년부 예배	금 08:20 PM
	주일학교	11:00 AM		목자훈련	목 06:30 PM
	한국학교	01:30 PM		Provo 제자훈련	화 07:00 PM
	제자훈련	02:30 PM	캠퍼스 730 Live	매일 마지막 주 금요일 07:30 PM	

발행인: 김철홍 목사 / 편집인: 최희석, 송강 / 발행일: 2009년 1월 25일

유타대학촌교회 회지복간 제 58호

1724 E. 2100 S. Salt Lake City, Utah 84106

전화: 801-467-4337 (교회), 801-943-3904 (담임목사관) / Email: chulhongkim58@hotmail.com

본 유타대학촌교회 월간소식지는 교회 홈페이지 임시게시판(<http://ucccutah.tistory.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